나, 연말에 스위스 갈까 봐.

스위스 도시 낭만의 절정은 12 월

크리스마스 기다리며 밝힌 불빛 가득한 도시 풍경
새록새록 사랑 돋을 것만 같은 낭만 이브닝
크리스탈 트리 장식부터 친환경 목각 장난감까지
그릴에서 구워낸 소시지부터 화덕에서 갓 구운 빵과 레몬즙을 뿌린 석화까지
구시가지에서 만나는 산타부터 필라투스 정상, 호반 마을에서 만나는 성 니콜라스 행진까지
쇼퍼홀릭과 푸디들을 위한 천국
이 동선만 따라가세요, 취리히와 루체른 낭만 겨울 완전 정복합니다

스위스의 겨울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4 주간을 뜻하는 기독교의 '대림절(Advent)'과 함께 시작된다.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을 기다리며 하루에 한 칸씩 열어, 초콜릿을 꺼내어 먹는 '어드벤트 캘린더'는 서양인들의 추억 속 따스한 순간임에 틀림없다. 이 4 주 동안 스위스의 도시가 일 년 중 가장 낭만적으로 물든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마다, 광장마다, 골목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들어서는 기간도 바로 이때다.

스위스의 도시들은 제각기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도시 전체 경관 조명을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대림절이 시기에 맞춰 크리스마스 마켓을 비롯한 연말 분위기 고조를 위해 낭만적인 전구 장식이 도심 곳곳을 수놓는데, 눈 덮인 지붕과 골목골목이 이 조명의 은은한 불빛에 반사되며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취리히 기차 역사에는 15m 의 높이에 7 천 개가 넘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마스트리가 들어서고, 루체른(Luzern)은 로이스(Reuss) 강가와 구시가지 거리 곳곳에 정성스럽게 전구 장식을 갖춘다.

로맨틱한 분위기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함께 그 절정에 달한다.
먼저 장터에 도착하면 향신료를 넣고 데운 와인, 글뤼바인(Glühwein)을 한 잔 사야 한다. 추운 밤공기에 몸을 데울 수 있는 로맨틱한 음료가 되어 준다. 글뤼바인을 한 잔 들고, 장터를 서서히 둘러본다. 크리스마스 장식품, 크리스털, 토기, 향신료, 장난감, 의류, 초, 각종 선물용품을 비롯하여 수공예품과 조각품, 아로마 향 버너, 털 슬리퍼, 유리 제품, 유리 쥬얼리, 수공 목공예품, 목각 제품, 모자,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와 초, 가죽 제품, 천연 화장품, 쥬얼리 등 아기자기하고 독특한 쇼핑 아이템이 가득하다. 100% 캐시미어를 비롯해 스위스 장터에서만 만날 수 있는 100% 메이드 인 스위스 제품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풍미 있는 먹거리도 큰 즐거움 중 하나다. 레몬즙을 뿌린 신선한 굴과 갓 구운 쿠키, 소시지는 물론, 화덕에서 갓 구워낸 빵이나 브레첼이 먹음직스럽다.

그런데, 요즘은 도시마다 대표 크리스마스 장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장터도 점점 진화를 거듭해, 도시 하나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와 형태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겨울 낭만 도시를 제대로 둘러볼 수 있는 방법을 여행자의 동선에 맞춰 소개한다. 정작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장터가 모두 문을 닫으니 그전에 서둘러야 한다.

1. 취리히(Zurich)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취리히는 작심을 하고 겨울빛을 밝힌다. 여기 나도 있어요, 하고 오래된 건물이 빛을 반짝인다. 그 위로 눈이 쌓이면 이 다채롭고 활기찬 도시 위로 정적이 내려앉는다. 뽀드득 소리를 내며 거리를 거니는 취리히 시민들은 이 고요를 한껏 즐기는 표정이다. 고요한 코너를 돌면 어느새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인 장터가 등장한다. 글뤼바인 한 잔씩 손에 들고, 사람들은 참 정다운 표정이다. 새하얀 베일을 쓴 듯한 교회 첨탑들도 취리히 야경을 빛내 준다. 취리히 사람들은 이렇게 겨울을 한 아름 마음에 품는다.

1. 취리히 중앙역

취리히의 겨울은 기차역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차를 타고 취리히에 내리면 솔솔 풍겨오는 글뤼바인과 시나몬 향기가 기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반겨준다. 기차역 전체가 크리스마스다. 7 천 개가 넘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마스트리는 그 높이가 15m 나 되는데, 시선을 사로잡는 설치물이다. 140 개 이상의 크리스마스 상점이 역사 내 광장에 가득 들어선다.

2. 중앙역에서 가까운 구시가지로

중앙역에서 나오면 취리히에서 가장 오래된 구시가지 크리스마스 장터로 향하면 된다. 니더도르프(Niederdorf)는 중앙역 뒤편에 있는 센트랄(Central)에서 바로 이어진다. 낭만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좁다란 골목길에 들어선 다양한 상점이 니더도르프슈트라쎄(Niederdorfstrasse)를 따라 줄지어 이어지다가 히르셴플라츠(Hirschenplatz)와 로젠호프(Rosenhof)처럼 숨겨진 공간으로 뻗어 나간다. 독특한 아이디어의 성탄 선물이 펼쳐지고, 다채로운 모양과 색깔로 신선하게 구워진 쿠키 향과 군밤 냄새, 아몬드 굽는 향내가 퍼진다.

3. 리마트(Limmat) 강을 건너, 프라우뮌스터로(Fraumünster)로

불 밝힌 리마트 강가를 따라 각자만의 조명을 밝힌 길드 하우스와 역사 깃든 호텔 건물들은 취리히 겨울 야경을 대표하는 풍경이다. 단연코 눈에 띄는 뾰족한 첨탑의 프라우뮌스터도 그중 하나다. 구시가지를 벗어나 리마트 강의 다리 하나를 건너, 프라우뮌스터로 향한다. 여기에서도 크리스마스 장터가 열린다. '뮌스터호프(Münsterhof)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불리는데, 프라우뮌스터 옆에 있는 뮌스터호프 광장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취리히 사람들을 위한 취리히 제품"이라는 모토로 열리는 장터답게, 주변 상점과 부티크에서 선보이는 퀄리티 위주의 로컬 제품을 구경할 수 있다. 프라우뮌스터와 전통 길드 하우스가 만들어내는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뮌스터호프 장터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등장하는 명소다. 생 야콥 베이커리(Bäckerei St. Jakob)에서 정성껏 구운 역사적인 쿠키, 취리히 티륵겔(Zurich Tirggel)부터 취리(Tsüri) 소스와 딜리 양말(DillySocks)까지, 그리고 전통이 깃든 란돌트 아르벤츠(Landolt-Arbenz)에서 만든 필기구까지, 다채로운 선물용품을 이곳 장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장터의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는 취리히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로컬 비즈니스와 취리히 브랜드, 하이 퀄리티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장터다. 컬처 텐트에서는 세련된 콘서트와 낭독회, 어린이 및 성인을 위한 워크숍도 열린다. 뮌스터 호프를 테마로 한 가이드 역사 투어도 운영되고, 잊지 못할 체험이 되어줄 액티비티와 이벤트도 열린다.

4. 강가 따라 거닐어 베르드뮐레플라츠(Werdmühleplatz)로

강가의 풍경을 즐기며 다시, 기차역방향으로 가다 보면 베르드뮐레플라츠라는 작은 공간이 나온다. 여기까지 가봐야 할 이유는 노래하는 크리스마스트리 때문이다. 베르드뮐레플라츠에서는 노래하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함께 크리스마스 마켓을 만나볼 수 있는데, 독특하게도 매일 콘서트가 펼쳐진다. 다양한 지역의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캐럴과 음악을 연주한다. 정해진 프로그램 시간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www.singingchristmastree.ch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5.취리히 야경의 정수, 반호프슈트라쎄(Bahnhofstrasse)로
노래하는 크리스마스 구경을 마쳤다면, 근처에 있는 반호프슈트라쎄로 빠져나온다. 취리히를 대표하는 명품 상점이 즐비한 거리로, 겨울마다 특별한 조명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공식적으로 열리는 거리기도 해서 시민들이 기다리는 행사다. 반호프슈트라쎄의 조명 프로젝트에는 이름도 있다. "루시(Lucy)"라는 이름인데, 비틀즈의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에서 따왔다. 올해는 11 월 25 일 오후 6 시에 점등식이 예정되어 있다. 새해 1 월 1 일까지는 매일 밤 조명을 밝히니 이 긴 거리를 언제든 거닐어 보아도 좋지만, 취리히의 명물 트램을 타고 쉬면서 그 풍경을 즐겨봐도 좋다. 반호프슈트라세를 따라 파라데플라츠(Paradeplatz)까지 11,550 개의 크리스털 장식이 설치된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다르게 반짝댄다. 반호프슈트라세의 트램선을 따라 에너지 절약 LED 전구 23,100 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루시 장식을 운영하는 6 주 동안 소비전력은 3,000 와트에 불과하다. TV 시청 30 시간에 불과한 전력이다. 반호프슈트라세 협회에 속한 112 개의 회원업체에서 이 크리스마스 전구 장식 행사를 후원하고 진행한다.

6. 반호프슈트라쎄에서 트램 타고 오페라하우스까지
2 번 트램을 타면 반호프슈트라쎄에서 파라데플라츠까지 이어지는 "루시" 프로젝트를 모두 감상하고, 오페라하우스까지 갈 수 있다. 여기에는 아이스 링크가 마련되어 있고, '크리스마스 마을'이라는 테마가 있어 특별하다. 취리히의 오페라 하우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젝세래우텐플라츠(Sechseläutenplatz)에서도 대형 장터가 열린다. '크리스마스 마을'이라는 뜻의 바너흐츠도르프(Wienachtsdorf)가 취리히 호숫가에 마련된다. 약 100 개의 상점이 오페라 하우스의 화려한 배경 앞에 빼곡하게 들어찬다. 이곳에서는 주로 로컬 디자이너들의 보석을 이례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고, 독특한 아이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다채로운 먹거리가 있어 로컬들에게 인기다. 퐁뒤 샬레에서 스위스 전통 음식을 맛볼 수도 있고, 인터네셔널한 메뉴를 찾아볼 수도 있다. 광장에는 아이스 링크도 마련되어 있어 로맨틱한 겨울밤을 보내기에 그만이다. 아이스 링크 입장료는 CHF 6, 스케이트 렌탈은 CHF 9 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 11 시부터 밤 10 시까지, 일요일은 8 시까지 운영한다. 늦은 밤까지 낭만을 잔뜩 즐겨보기 좋은 곳이다.

*** 장터별 일정
1. 취리히 중앙역: 11 월 25 일 - 12 월 24 일
2. 니더도르프(Niederdorf): 11 월 25 일 - 12 월 23 일
3. 뮌스터호프(Münsterhof): 11 월 25 일 - 12 월 24 일
4. 베르드뮐레플라츠(Werdmühleplatz): 11 월 중순에 프로그램 발표 예정
5. 반호프슈트라쎄(Bahnhofstrasse): 11 월 25 일 오후 6 시 점등 – 1 월 1 일
6. 오페라하우스(Operahaus): 11 월 25 일 - 12 월 23 일

2. 루체른(Luzern)
루체른보다 더 평화로운 도시의 밤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도 모른다. 주민들과 숍 주인들, 사업가들은 서로의 이름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이들에게 겨울은 특히 더 가족같이 따사로운 계절이다. 특별한 왕관 모양의 조명 장식이 걸리고, 꿈결같은 불빛이 로이스(Reuss) 강을 따라 나있는 길, 로이스슈테그(Reusssteg)를 밝힌다. 카펠교가 로이스 강을 가로지르는 이 구시가지에 크리스마스 장터도 들어선다. 아이들과 어른들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계절의 낭만을 즐긴다.

1. 설레는 마음 가득 찬 스위스 가족들 만날 수 있는 크리스마스트리 마켓

먼저, 루체른 기차역에서 내리면 기차역 앞 다리를 건너, 호수 반대편으로 가보자. 진기한 구경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서양 사람들은 크리스마스트리를 진짜 나무로 꾸미는데, 스위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각 가정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미기 위해, 트리용 나무를 사러 가는 것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는 자세다. 야외에 다양한 사이즈의 나무를 전시해 놓고 판매하는데, 여행자에게도 충분히 진기한 구경거리가 되어준다. 슈바이처호프케(Schweizerhofquai), 나시오날케(Nationalquai), 헬베티아플라츠(Helvetiaplatz), 벨러리브 회헤(Bellerive-Höhe)를 돌아가며 장이 선다.

2. 일요일이라면 5 성급 크리스마스 마켓도 구경할 수 있어

크리스마스트리 마켓을 호반 쪽에서 만났다면, 근처에 있는 슈바이처호프(Schweizerhof)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향하기 좋다. 루체른 호반의 5 성급 호텔, 슈바이처호프에서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단 세 번의 일요일에 열리는 슈바이처호프 크리스마스 마켓은 호텔의 역사 깃든 홀 여러 곳에서 진행된다. 나무, 직물, 도자기로 직접 공들여 만든 수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다.

3. 호반에서 크리스마스 공예 마켓 서는 구시가지로

구시가지의 아름다운 바인마르크트(Weinmarkt) 광장에서 열리는 장터로, 루체른의 장인들 60 여 명이 공들여 만든 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다. 도자기, 주얼리, 장난감, 목각 제품, 가죽 및 직물, 초와 유리 제품을 비롯해 먹거리도 갖췄다. 정해진 토요일과 일요일, 수요일에 한정되어 열리는 장터이므로, 날짜를 잘 확인하도록 한다.

4. 구시가지 크리스마스 마켓

바인마르크트에서 벗어나 강가로 향한 뒤, 로이스브뤼케(Reussbrücke) 다리를 건넌다. 이 다리 위에서 보이는 카펠교와 강변의 풍경은 또 다른 각도에서 루체른을 볼 수 있게 해주어, 인기 있는 포토 포인트다. 다리를 건너면 멀지 않은 광장에서 루체른을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프란치스카너 광장(Franziskanerplatz)이다. 각종 크리스마스 장식품, 군것질거리와 캔디류, 따뜻한 글뤼바인을 포함한 각종 음료를 판매한다.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도 펼쳐지니, 신나는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보자.

5. 구시가지 전통 시장에서 신시가지 현대 시장으로

프란치스카너 광장에서 조금만 더 가면 “노이슈타트(Neustadt)”라 불리는 루체른의 신시가지가 나온다. 여기에 뵈겔리개르틀리(Vögeligärtli)라는 이름의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식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4 주 동안 예술적인 미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장터다. 올해 처음 열리는 장터로, “뵈르개르틀리에서의 겨울 재미”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신시가지 장터에서 조금 색다른 분위기를 만나볼 수 있다. 마법 같은 숲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연상시키는 장식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인터내셔널한 메뉴와 드링크는 물론,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통 양초 만들기 체험도 장터에서 진행된다. 아이들은 회전목마를 탈 수 있고, 주말과 수요일 오후에는 음악회도 열린다. 자선 오두막이 특별한데, 청년 로컬 레이블이 자신들의 제품을 선보이는 무대가 되어준다. 루체른의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플랫폼을 선사해 주는 자리기도 하다. 여기에서라면 진짜 특별한 루체른만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아볼 수 있다.

6. 기차역 건너편 KKL 옆 호반 공원 장터로

기차역 바로 옆, 카카엘(KKL)을 돌아 호수를 따라 거닐면, 루체른 시민들이 참 좋아하는 호반의 공원이 나온다. 인젤리(Inseli) 공원이다. 이 공원도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변신한다. 올해에 두 번째로 열리는 장터로, ‘루돌프의 크리스마스’라는 테마로 호반 공원에 찬란한 빛을 밝힌다. 퐁뒤 샬레에서 풍미 좋은

치즈 요리를 맛보며 몸을 녹일 수 있다. 공원 전체에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한 목조 샬레가 차려지고, 디자인 및 공예품을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공원 한가운데에는 윈터바가 차려지는데, 모닥불 주변에 모여 한겨울 구시가지와 호수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야경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하기 좋은 곳이다.

7. 유럽에서 제일 높은 크리스마스 장터, 필라투스(Pilatus) 크리스마스 마켓
특별한 크리스마스 체험을 원한다면 필라투스로 향해보자. 필라투스 정상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루체른 호수 지역의 수공예품과 글뤼바인을 포함한 맛있는 음식 코너가 마련된다. 크리스마스 캐럴과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해발고도 2132m 위에서 색다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크리스마스 마켓이기도 하다.

8. 리기(Rigi) 마을 산타의 날
리기로 향하는 호반 마을, 퀴스나흐트 암 리기(Küssnacht am Rigi)에서는 매년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12 월 5 일, 바로 성 니콜라스(St. Nicholas) 날 이브다. 거대하고 투명한 주교관(모자) 약 200 개가 마을을 밝힌다. 예술적인 감각으로 디자인된 주교관은 두꺼운 종이를 자르고 조립해 만들어졌는데, 안쪽에 촛불을 밝힐 수 있게 되어 있다. 성인 남성들이 이 커다란 머리 장식을 이고 마을을 가로질러 행진하는 성 니콜라스를 뒤따른다. 건장한 남자들이 든 무거운 종소리와 호른 부는 소리가 거리를 채운다. 금관 밴드의 특이한 리듬이 '맨츠(Mänz), 맨츠, 맨츠, 보데프리디맨츠(Bodefridimänz)'라고 외치는 소리와 어우러진다. 클레멘츠 울리히(Clemenz (Mänz) Ulrich)라는 인물의 이름에서 따온 외침으로, 1920 년대에 성 니콜라스를 소란스럽게 뒤쫓던 마을의 젊은이들을 개회시켜 보려 했으나 실패하고 만 인물이다. 1928 년 그의 후임은 클라우스야겐(Klausjagen)이라 불리는 풍습을 보존하기 위한 협회를 세우며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문화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꽤 요란한 풍습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 장터별 일정**
1. 크리스마스트리 마켓: 2021 년 12 월 17 일 - 23 일
2. 슈바이처호프(Schweizerhof): 2021 년 11 월 28 일, 12 월 5 일, 12 월 12 일
3. 바인마르크트(Weinmarkt): 2021 년 12 월 4, 8, 11, 12, 18, 19 일
4. 프란치스카너플라츠(Franziskanerplatz): 2021 년 12 월 2 일 - 12 월 21 일
5. 뵈겔리개르틀리(Vögeligärtli): 2021 년 11 월 19 일 - 12 월 22 일
6. 인젤리(Inseli): 2021 년 11 월 19 일 - 12 월 23 일
7. 필라투스(Pilatus): 2021 년 11 월 12 일 - 11 월 14 일
8. 퀴스나흐트 암 리기(Küssnacht am Rigi): 2021 년 12 월 5 일

******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한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